

# “요구 많은 동물보호 위탁 더는 못하겠소”

### 동물단체, 광주동물보호소 환경개선 민원 줄이어

### 수탁업체 4개월만에 운영 포기...市, 11일까지 다시 공모

광주동물보호소 위탁을 맡은 민간 동물 보호단체가 운영 4개월 만에 돌연 포기의사를 밝혔다.

처음으로 민간 동물보호단체가 광주동물보호소 운영을 맡으면서 환경개선 등 기대가 컸지만 결국 예산 증액 없는 운영 시스템 변화에 한계(광주일보 2015년 10월 27일 7면)를 느낀 것이다.

특히 한정된 예산으로 운영되는 광주동물보호소의 전반적인 운영실태와 이를 바라보는 일부 동물애호가 사이의 눈높이 차이도 어려움으로 작용했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광주동물보호소 운영을 맡아온 동물보호네트워킹가 최근 위탁운영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오는 11일까지 운영할 기관이 나 단체를 공모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한 동물보호단체가 기존 위탁운영기관인 전남대산학협력단 동물의학연구소를 검열에 고발하는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하자 운영시스템 일부를 개선했다.

연간 4억2000만원(시비 3억원, 구비 1억2000만원)의 예산으로 동물보호소가 모든 업무를 맡아왔던 기존 방식에서 구조·포획은 자치구가 맡고, 보호·관리는 위탁기관이 하는 방식으로 이원화한 것이다. 하지만 사실상 업무만 이원화하고 예산 증액은 한 푼도 없었다.

동물보호네트워킹은 운영 초기부터 부족한 예산 때문에 운영난과 인력난에 시달렸으며, 광주시에 수차례 운영비와 인건비 증액을 요구했다. 광주시도 광주동물보호소의 열악한 운영 여건을 고려해 최근 추경에 5000만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동물보호네트워킹 관계자는 “시민들의 기대치와 우리의 의욕이 높아 새로운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려고 했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에 직면했다”며 “직원 6명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직원 1명이 거의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했다”고 밝혔다.

위탁기관과 동물애호가들의 마찰도 위탁 포기 사유 중 하나다. 실제 일부 동물애호가는 낯선 마찰을 빚으면서 수차례 경찰이 출동하는 등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보호소를 운영하는 위탁기관과 더 나은 시설과 운영, 동물 복지를 요구하는 동물애호가들의 눈높이에 큰 차이가 있어서다.

위탁기관과 동물애호가의 마찰이 계속되자 자원봉사자들까지 끊이지 않는 시선을 보냈고, 결국 후원물품과 봉사자 감소로까지 이어져 운영난이 더욱 가중되기도 했다.

광주시는 난감한 상황이다. 동물보호네트워킹가 당장 6월8일까지 운영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선뜻 위탁에 나설 기관이나 단체가 있을지 장담할 수 없어서다.

유기동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도우미견희망센터(가칭) 건립 사업도 국비 공모에 떨어지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 예산 지원의 한계가 있다”면서도 “동물애호가들의 민원이 계속될 경우 새롭게 나선 위탁기관이 얼마나 견뎌낼지도 미지수”라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후우 피해 없어야 할텐데...” 광주·전남지역에 최고 100mm 이상의 비 예보가 내려진 2일 오전 곡성군 곡성읍 한 밭에서 농민이 밭이랑을 살피고 있다. 이번 비는 3일 오전까지 내린 뒤 점차 그치겠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세월호 유족들 해외 참사 피해자 만난다

### 가족협 4명 스웨덴 등 5개국 방문...연대행동 논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유럽을 방문해 스웨덴 ‘에스토니아호 침몰 참사’와 영국 ‘힐스버러 압사 사건’ 유가족들을 만난다.

1일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대 따르면 고 유에은양의 아버지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등 4명이 3일부터 15일까지 독일, 바티칸, 벨기에, 영국, 프랑스를 방문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유사 참사 재발방지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연대행동을 조직할 예정이다.

이들은 방문기간 런던대 한국학센터 주최로 열리는 간담회,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 유사 참사 피해자 단체와의 면담, 교민

간담회 등을 진행한다.

특히 1994년 침몰해 989명 중 852명이 사망한 스웨덴 에스토니아호 참사 유가족들이 베를린으로 찾아와 세월호 유가족을 만난다. 세월호 사건과 많은 부분이 닮아 있는 에스토니아호 참사는 현재도 진상조사를 위한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

또 최근 27년 만에 참사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판결을 받은 영국 힐스버러 경기장 압사 사고(97명 사망) 유가족 및 변호사들과 만나 진상규명과 추모사업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39    달뜨기 03:12  
해질 19:20    달지기 15:14

#### 오후엔 화창

흐리고 비가 오다가 오후에 그치겠다.



#### 지역별 날씨 (°C)

광주	비온뒤	13/18	보성	비온뒤	16/17
목포	비온뒤	17/17	순천	비온뒤	16/18
여수	비온뒤	16/17	영광	비온뒤	15/17
나주	비온뒤	16/18	진도	비온뒤	17/17
완도	비온뒤	17/18	전주	비온뒤	17/18
구례	비온뒤	16/18	군산	비온뒤	17/18
강진	비온뒤	17/17	남원	비온뒤	17/18
해남	비온뒤	16/17	홍산도	비온뒤	13/15
장성	비온뒤	15/17			

#### 바다 날씨

지역	방향	오전		오후	
		파고(m)	풍향	파고(m)	풍향
서해	남서	2.0~4.0	남서	2.0~3.0	남서
	남북	3.0~4.0	남서	2.0~4.0	남서
남해	남서	2.0~3.0	서	1.0~2.5	서
	남북	2.0~5.0	서	2.0~4.0	서
제주	남서	2.0~4.0	서	2.0~3.0	서
	북서	2.0~4.0	북서	2.0~3.0	북서

#### 생활지수

식중독	주의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좋음

#### 물때

목포	밀물	썰물
	11:00	04:04
	23:35	16:47
여수	밀물	썰물
	06:18	12:28
	18:42	00:00

#### 주간 날씨

4(수)	5(목)	6(금)	7(토)	8(일)	9(월)	10(화)
☀	☀	☁	☀	☀	☀	☀
11/24	12/26	12/21	11/24	11/25	11/24	12/24

## “전체회의 안 거친 학부모 대표 인정 안돼”

### 광주지법 “학폭위 처분 위법”...합평골프고 학생 승소

학부모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위촉한 학부모 대표로 자치위원회를 꾸려 결정했다던 이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길성)는 합평골프고등학교 A양 등이 학교 학생 2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특별교육이수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학교 측이 이들 학생에게 내린 특별교육이수 4개월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이들은 2015년 6월 동급생에게 언어폭력·성추행·집단지침 등 학교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로부터 출석정지와 전학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전남도교육청에 재심을 청구했고, 교육청은 전학결정 취소 결정을 했다. 이에 자치위는 재심을 거쳐 이들에게 특별교육이수 4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들은 자치위원 학부모 대표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자치위는 5~10인 위원으로 구성하고, 과반수는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위촉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해야 한다”면서 “당시 학부모 위원 5명 가운데 3명은 학부모회의에서 선출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 이 때문에 이를 근거로 내린 자치위의 결정도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 서구, 내일 상무시민공원 ‘구민의 날’ 행사

광주 서구는 제22회 서구민의 날(5월 1일)을 맞아 오는 4일 상무시민공원에서 기념행사를 연다고 2일 밝혔다.

기념행사는 서구민 상 시상, 나눔액 만들기, 주민 화합한마당 행사 등으로 구성됐다. 건축과에서는 무료 건축 상담 부스를 설치, 찾아가는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약간의 기부금을 내고 다양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나눔장터도 열린다. 9

일에는 서구청 대회의실에서 주민 토론 회도 예정돼 있다.

서구 관계자는 “서구민의 날 행사가 주민 소통과 화합, 나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주민 누구나 즐겁게 행사에 참여해 서로 따뜻한 정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사 문의는 서구청 총무과 062-360-7913. /김형호기자 khh@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시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서석초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 서비스업체 전남대학교, SKY in Seoul

초혼		추천회원		재혼	
남	여	남	여	남	여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8~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의사, 변호사	32~72세
시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아나운서, 회사원	26~41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2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4세
판사, 검사, 변리사, 회계사	28~47세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대기업 간부	36~67세
삼성, 현대, LG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26~39세	회사원, 자영업	33~61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무출산 여성 희망	33~48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VIP 희망 여성	32~45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1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공무원, 교사	32~54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사, 영양사	26~42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통	27~36세	자영업, 가사	35~60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이엔드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

**새 주인을 찾습니다** **팬션 매매**  
아름다운 팬션 30여개 영업중

- 70~80년된 벚꽃, 소나무, 백일홍, 편백, 은행, 느티나무 50여그루 조경
- 잡종지 15,688㎡ (4746평) 전 1,985㎡ (600평) 총 5,346평
- 편도 1차선 지방도 200m 도로점 (매인 3000평 분할가능)
- 무안공항 고속도로 광산IC 15분/문평IC 5분
- 실버타운, 연수원, 수련원, 대안학교 가능

주소 | 함평군 대동면 대동길 569  
금액은 현지 답사후 상의 결정 **H. 010-3119-6952**